

장애인도
사람이다

10(월)
07:19

KBS2

초능력
대한민국

편지 한 통으로 극작가됨

아아 광주에 방이 있어 하루밤 잠 채워주며, 먹은것도 주고. 장작
강제노역피해자 편지본문
것입니다. 무슨일인지 몰라 물어보니 명전이라야, 어렵기도 힘들지도
않고, 쉽게 일할수 있다. 3개월만 일하라 하며, 숙여 소저소농들이
섬에 저를 팔아 넘겼습니다. 이리하여 나자적도 못하고, 단락도 못하게
하고, 천 저리 경시방에 잡혀 있을수 밖에 없는 사형이 있습니다.
명전에 와서 일한지는 2012. 7. 05 ~ 2014. 1. 11 약 1년
5개월 정도 일해왔으며, 여류에는 명전에서 조금내고, 조금
알고, 대파 황소 막노동을 여러가지로 일해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금 팔기까지 소금작업 다녔으며, 가을에는 비닐사(4각배기)를

대전
-2.1℃

2014년 1월, 신안군

선천적 시각 장애 5급을 가진 김씨가
몰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2014년 1월 28일

각각 1년 6개월, 5년 2개월을 동안
염전에서 강제로 일을 한 김씨와 채씨는
김씨의 편지를 받은 어머니의 신고
덕분에 경찰에게 구출된다.

그리고

경찰은 2014년 한 해 동안
신안군에서 63명을 구출했는데...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은
장애인이었다.

[단독] 세상으로 돌아왔던 '염전노예' 세상에서 버림받고 돌아갔다

입력 : 2015-04-08 00:10 | 수정 : 2015-04-08 04:37

김모(51·지적장애 2급)씨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13년간 '염전 노예'로 살았다. 지난해 당국의 일제단속 이후 섬에서 벗어난 김씨는 전북 남원에 사는 누나와 연락이 닿았다. 하지만 김씨가 없는 삶에 익숙해진 가족들은 그를 외면했다. 13년간 그를 노예처럼 부려 먹은 염전 주인에게 연락해 그를 또다시 섬으로 보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염전 노예'로 살다가 구출되어 돌아왔지만
주변 사람들의 외면 때문에 2014년 구출된
63명 중 약 40명이 염전으로 돌아가거나
노숙 생활을 하게된다

실형 선고받은 염전 업주들 항소심서 잇따라 집행유예

기사입력 2014.09.25. 오후 6:21 최종수정 2014.09.25. 오후 6:41

스크랩



본문듣기 · 설정



7



196

^{Beta}
요약봇

가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홍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별 참작 사유로 들었다.

염전주들은 솜방망이 처벌

광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홍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염전노예 등 장애인 강제노동 강요시 7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 2017.01.20. 오후 4:15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 설정



3



6

요약봇 ^{Beta}

가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 분야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연금 사각지대 관리…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도입 등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앞으로 '염전노예' 등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강요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국 2017년

뒤늦게 장애인에 대한 강제 노동 강요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법이 통과되었다

이번엔 '통영 양식장 노예'...섬에서 19년간 노동착취·폭행

기사입력 2020-07-02 18:49

6년 전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남 통영 가두리 양식장에서 지적장애인을 약 19년간 착취하거나 상습 폭행한 '가두리 양식장 노예'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의 한 해상에서 가두리양식장을 하는 A씨(58)를 노동력 착취 유인 및 준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마을에 사는 B씨(46)와 C씨(46·여)를 준사기, 상습 폭행 및 장애인 수당 착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착취와 학대는
끝나지 않고있다.

법보다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이미 학교와 몇몇 직장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교육을
받고있지 않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도 주변 이웃과
경찰들이 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까지 고통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주변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장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갖는 자세를 가져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